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폭우와 강풍피해를 복구하여 새로 일떠세운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도하시였다.

올해 우리 나라 전역을 무섭게 휩쓴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군인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북리가 이번 폭우와 강풍에 의하여 큰 피해를 입은데다가 해마다 자연재해를 받고있지만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여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실태를 료해하시고 즉시 인민군부대들에 리소제지의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여 리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한 전투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의 명령을 받아안고 피해지역으로 달려나온 인민군부대 장병들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피륙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충성의 백열전을 벌려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를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우고 당중앙에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의 첫 승전소식을 올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을 련상시키며 사회주의 향기를 내뿜는 사회주의농촌본보기 마을을 바라보시며 지난날 락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도도 처참하기 그



하다고, 우리 당대회가 이 중대한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우리 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당위원장에게 이제 빠른 주민들을 입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새집들이 하는 모습들을 하루빨리 보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불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하시였다.

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수도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 지방건설방침이 우리 군인들의 애국적헌신과 투쟁에 의하여 또 하나가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전개된 재해복구전선마다에 주력으로 나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진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들과 함께 농촌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농촌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에 건설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며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농촌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 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에 건설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며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일떠서고 조선로동당의 념원이 구현된 사회주의농촌본보기마을에 보금자리를 펴게 된 금천군 강북리의 농장원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이 당한 불행을 가서주기 위해 기울인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헌신함으로써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할것이다.

우리 원수님 계시기에,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자연의 광란이 휩쓴 상처입은 나라의 곳곳마다에 보다 훌륭한 인민의 삶과 행복의 터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를 그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
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
에서 은파군큰물피해복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일군들이 맞이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사상과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령을
높이 받들고 큰물피해복구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
전투원들과 지휘성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의도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불타는
일념을 안고 충성의 결사전을 벌리며
피해복구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복구건설전적정형과 공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전역이
들썩이고 군대맛이 나게 화선식전선동
사업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복구건설에 동원된 모든 전투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산악
같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격식과 틀이 없이 전투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시대적락후성과
큰물피해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규모
있게 들어앉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
답게 체모를 드러낸 피해지역 농장 작업반
마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만나본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살림집을 건설
자재소요량이나 부지절약측면을 고려
하지 말고 1동 1세대로 지어주라고
지시를 주고 설계안을 비준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농장원
들의 요구에 맞고 농장원들이 좋다고
해야 많은 품을 들여 새로 건설한 보람도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과 30여일
만에 이같은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

것은 자기 당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이번에도 세상을
놀래울것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의
곳곳에 우리 군인들의 정성이 력력
하다고, 인민의 훌륭한 아들딸들이
우리 군인들이 피해복구건설에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우리 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
품모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
전투원들의 건설작업모습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직한
이런 위력한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중의 자랑이라고, 우리
당의 격정과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
성실한 애국심과 충성의 피와 땀으로
도말아 가셔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생각하는 정치사상적강군, 도덕적
강군,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떤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혁명의 진펄길도 배심
있게 밀고나가는것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
군대가 있는 한 그 어떤 자연재해도,
재앙도 우리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앗아

가지 못한다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 지휘성원들에게 자연재해
복구에 인민군대를 부른 당의 의도와
복구건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급 당조직
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모든 인민군군인
들이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대전애 인민군대를 부른 당중앙의 의도를
뚜렷히 인식하고 한삼의 모래를 떠도,
블록 한장을 쌓아도 일심단결의 성세를
쌓는 자각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큰물
피해와 태풍피해복구사업에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동원시켰는데 인민군대는
자연재해복구사업을 당과 인민의
혈연적누대를 고수하고 더욱 공고히
다지는 정치사업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곤난속에서도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지키고 당의 절대적권위를
보위하기 위한 최중대사업으로 자각
하고 모두가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있을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락심
하게 하거나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민위천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모든
국가적잠재력을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총동원시켜 전례없는 대복구
전투를 전개하고 혁명적당군을 전국
각지의 자연재해복구전선에 주력으로
내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피해복구전선마다에서 영웅
신화와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려 당창건 75돐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8차대회를 영예롭게 결사보위
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지휘
성원들이 건설의 성패는 전적으로 자신들
에게 달려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건설에 대한 장악지휘와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립체전, 섬멸전, 속도전을
맹렬히 벌려 건설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설계와 기술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실무적인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침수농들에

들리시어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면서 적지 않은 면적의
침수논벼포전들에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논벼
들의 생육상태가 시원치
않은데 대하여 못내 심려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록 손실은 있지만 봄내
여름내 농장원들이 성실한
땀을 바쳐 힘있게 애써 가꾼
농작물들을 쉽사리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결정적인
농업기술적대책을 세워
어떻게 하나 생육상태를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
들이 맥을 놓지 말고 분발
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이악하게 책임
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강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에 련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장마철폭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물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
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것
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힘차게 극복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피해복구건설현장에 대한 원수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인민군
군인들은 한몸이 그대로 당중앙을 결사
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어 당창건
기념일까지 피해복구건설을 최상의 수준
에서 훌륭히 완공하고 승리의 보고를
기어이 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이 키운
군대와 인민이 자기 령도자, 자기
최고사령관을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결사옹위하는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맹세하
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애국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발걸음은 곧 우리
조국이 내짚는 힘찬 전진의 보폭이 되고
기적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인민과
군대는 오늘의 자연재해복구전투에서도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이며 사회
주의만세소리는 10월명절의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화위복의 전설이 창조되는 조선

인민사랑의 호소에 화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의 로동당원들에게 보내신 감동깊은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당원들은 물론 나라 인민이 피해복구사업에 떨쳐나섰다.

공개서한을 접한 후 평양에서는 몇시간만에 수십만명의 당원들뿐 아니라 많은 각계층 근로자들이 태풍피해복구에 참가할것을 단념했다.

자연의 재해를 단기간에 가시는 복구건설은 혈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태풍피해문제때문에 심려하시면서 재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친필로 작성하여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누군들 가슴울리지 않랴. 그 중대한 임무를 수도의 당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크나큰 믿음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 감복하여 저저마다 피해복구에 참가할

것을 단념해나선것이다.

그들중에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받들어 자신도 최정예수도당원사단에 추천해달라고 청원한 로동원도 있고 어린 자식이 달린 녀당원도 있으며 군대에서 제대되어 건설자로 일하는 당원도 있다.

이렇게 되어 단 하루동안에 최정예수도당원사단들이 조직되었으며 이 수도당원사단들은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결의모임을 가지고 평양시민들의 배움을 받으며 즉시 피해복구지역으로 떠났다.

함경남북도 피해복구현장에는 건설력량과 함께 건설자재들을 실은 열차, 자동차, 배들이 급속히 전개되었다.

제2수도당원사단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련결하는 도로와 철길, 다리들이 태풍피해를 입어 단천에서 더 나갈수 없게 되자 집들을 차안에 놔둔채 맨몸으로 강행군을 하여 빠른 시간에 복구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기에 피해지역 인민들은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이 도착하자 《우리 원수님의 친위대오를 만나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수도의 당원들에게 보내신 공개서한이 실린 당보를 받아안고 너무도 감격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원수님의 친위대오, 별동대인 수도당원들과 함께 우리도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피해복구전투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피해지역복구를 위한 자재보장과 수송을 맡은 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결의를 가다듬고 힘찬 중산, 중중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었다.

또 온 나라의 당원들이 그의 호소에 화답하여 당원들격대를 무어 자기 도의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갔다.

강원도와 황해남북도를 비롯하여 전국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연재해복구를 위한 힘찬 투쟁의 불길이 활화산마냥 타오르고있다.

령도자의 호소에 한목소리로 호응해나선 인민들, 이어벌수도 만들어낼수 없는 일심단결은 령도자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한 마음, 한뜻으로 받드는 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서사시작화풍인것이다.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인민을 품어주시며 인민의 아픔과 불행을 가셔주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다같이 넓고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 이 사랑의 품에 안겨사는 끝없는 행복과 긍지, 이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전체 인민의 불같은 애국열의가 있어 공화국은 오늘의 제약을 가지고 2020년을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자연의 광란이 휩쓴 나라의 곳마다에서 인민의 삶과 행복의 터전들이 훌륭하게 변모되어 우수축순처럼 솟아오르고있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도 자연재해의 흔적이 말끔히 가셔지고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 마을이 훌륭히 일떠섰다.

인민군부대 장병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총성의 백열전을 빌려 리의 소재지를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우고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의 첫 승전소식을 전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여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피해현장에 달려나온 인민군장병들은 진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지니고 강북리 소재지를 안락으로 손색이 없이 훌륭히 건설하였다.

조선의 본때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부대 장병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도 무한히 고무되어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해줄 일념으로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함경남도안의 피해복구전역 그 어디에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견해주신 최정예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과 한전호에서 어깨걸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제1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은 홍원군 운포로동자구에 도착하자마자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수백의 세멘트를 짐승수송하고 다음날에

레와 혼석채취에 달려붙었으며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작업을 중단없이 내밀어 하루 동안에만도 많은 량의 혼석을 확보하였다. 사단에서는 파괴된 도로를 시급히 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제2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과 현지주민들의 치열한 철야전으로 13일 총동원과 석호리의 지대정리가 하루동안에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

군대와 인민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도착의 피해복구전투장마다에서는 련일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 짧은 기간에 화를 복으로 만드는 전변의 모습들이 펼쳐지고있다.

바로 이것이 조선로동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각오를 지닌 공화국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기풍이며 조선의 본때이다.

송정수



모든 기적의 창조자

재해복구전선마다에 주력하시어 나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지니고있는 진할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여졌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



아름다운 한복의 그림자나 사회주의향기를 절제 품기는 선경마을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시였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의 새로 꾸러진 본보기농촌마을이다.

새 집의 주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규모있고 즐비하게 늘어선 아담하고 번듯한 살림집들, 마치 눈앞에 동화세계를 펼쳐놓은듯 하다.

산뜻한 담장을 둘러치고 그속에 들어앉은 단층살림집들이며 그와 어울리게 조화롭게 일떠선 2층, 3층의 살림집들, 문화회관, 학교 등 모든것이 불수롭기 없었다.

최근 련이어 들이닥친 폭우와 강풍은 너무도 많은것을 파괴해버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이곳에서 대재앙의 흔적은 도저히 찾아

볼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피해지역으로 달려나온 인민군근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피워는 심

장마다에 새겨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복구전투를 벌려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를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우고 당중앙에서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의 첫 승전소식을 울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폭우와 강풍피해,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난날의 락후성을 짧은 기간에 흔적도 없이 털어버린 강북리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이 격동의 웨침속에서 다가오는 10월명절은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행복속에 성대하게 경축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하시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정성은 말씀이.

한기에 재앙의 먹구름이 밀려가고 행복의 꽃구름이 펼쳐진 이 하늘아래서 누구나 걱정을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이 격동의 웨침속에서 다가오는 10월명절은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행복속에 성대하게 경축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사회주의향기 그윽한 선경마을

있어도 장마그루터기는 없었고 했다.

최근 련이어 들이닥친 폭우와 강풍은 너무도 많은것을 파괴해버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이곳에서 대재앙의 흔적은 도저히 찾아

볼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령을 받아안고 피해지역으로 달려나온 인민군근원들은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피워는 심

장마다에 새겨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복구전투를 벌려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를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우고 당중앙에서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의 첫 승전소식을 울리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폭우와 강풍피해, 해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난날의 락후성을 짧은 기간에 흔적도 없이 털어버린 강북리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이 격동의 웨침속에서 다가오는 10월명절은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행복속에 성대하게 경축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 바란다고 하시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정성은 말씀이.

한기에 재앙의 먹구름이 밀려가고 행복의 꽃구름이 펼쳐진 이 하늘아래서 누구나 걱정을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은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이 격동의 웨침속에서 다가오는 10월명절은 인민의 크나큰 기쁨과 행복속에 성대하게 경축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자력갱생을 변명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불과 1년동안에 웅장한 새 거리를

주제104(2015)년 11월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미래과학자거리가 로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서 준공을 선포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 속에 마련된 사랑의 거리이다.

총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체육시설, 립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미래과학자거리는 건물의 외벽을 갖가지 색깔로 마감하고 라페처럼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함으로써 하나의 천연색거리로 형성되었다.

거리에서 보아도 과학자를 위한 거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53층초고층살림집위에 전자자리길의 모양으로 라페처럼 상징탑을 세운것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들이 고도로 예술화되었다.

살림집들의 시공의 질이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고풍하게 갖추어져 있어 새집들이하는 교원, 연구사들이 손집만 들고 오면 살수 있게 꾸러졌다.

또한 각종 상업, 금융,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도 건물의 기단층들에 구색이 맞게 배치하였을뿐만 아니라 홀잡잡에 없이 꾸러놓았으며 주민들이 마음껏 휴식하고 운동도 할수 있도록 휴식터들과 체육공간들이 이채롭게 꾸러지고 주택지구의 원림도 특색있게 조성되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요구에 맞게 미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완공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전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자립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고있다.

과학자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새로 건설하게 되는 거리를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 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완공하여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과학자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받들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제일 큰 대상물을 맡아 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상상할수 없이 통이 크게, 일관을 벌려도 단숨에 해제끼는 조선의 본래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힘있게 발휘되었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총수가 제일 높은 53층초고층살림집건물은 골조시공이 대단히 어렵고 공사량도 아름다운 규모의 건설대상이었다.

비량과 시공방법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살림집골조사를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시공하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공사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떠받들려 건물골조공사에서는 평균 1~2일, 40층계선부터는 12시간내에 한층씩 아바르가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군인건설자들은 53층이나 되는 건물의 특성에 맞게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고 총막과 벽체동시타입, 합리적인 수평팔람식기둥설치를 비롯한 앞선 공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였으며 강제식혼합기, 혼합물압송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골조공사에 박차를 가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방대한 건물골조공사를 추진하면서 10여층분에 달하는 내부미장공과 전기배관공사, 봉사시설기공작업도 립체적으로 벌려나갔다.

창건거리건설때보다 근 2배의 속도가 창조되어 불과 50일

동안에 큰 규모의 살림집골조가 일떠서고 60여일만에 53층초고층살림집골조가 하늘을 치받으며 솟구쳤다.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짧은 기간에 규모가 큰 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립이 일떠세웠다.

수도건설부문과 성, 중앙기관의 돌격대를 비롯한 건설에 참가한 단위들의 건설자들도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라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대상별, 단계별과제를 일제적태로 밀고나가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건설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공격정신을 벌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색있는 과학자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례없는 비상한 속도로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는 앞날에 대한 광란을 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중함을 자기식으로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정신을 전하며 오늘도 멋쟁이거리로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홍복식

새 교수방법창조의 앞장에서

동그스름한 얼굴에 영채도는 두눈, 열정적 넉넉한 목소리... 이것은 김송희 평양의학대학 립상제1의학부 교원에게서 받은 첫인상이었다.

얼마전 취재차로 김송희교원을 찾아가니 그는 새 교수방법창조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김송희교원은 창조형인재육성을 위한 새 교수방법창조에서 의학교육부문의 앞장에서 나가는 실력가, 정열가로 알려져있다.

지난해에 두차례에 걸쳐 수십개 대학의 교육자들 앞에서 진행한 그의 강의를 두고 교육부 문인근모두가 세계 교육발전추세에 맞는 새로운 의학교수 방법이며 전국의 대학들에 일반화할수 있는 가치있고 유일한 교수방법이라고 한결같이 평가하였다.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김송희교원은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여 진단 및 치료알고리즘의 설계능력을 키워주는 변론식교수방법과 같은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였다.

교원의 설명을 위주로 하던 전통적인 교수방법에서 벗어난 그의 새 교수방법은 교원의 조종과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마음껏 착상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 자신이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김송희교원의 말에 의하면 학습과제 제시된 새 지식을 학생들이 자기의 착상과 서로의 협동으로 목적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한다.

그는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강의전용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를 통하여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심리와 인식정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주어 체계정형하게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인체에서 일어나는 병적과정을 눈으로 볼수 없고 만져볼수 없는 의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3차원화상가공기술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리해하기 힘든 장기의 형태학적구조들을 실물처럼 컴퓨터화면에 현시해놓고 마음껏 조종하면서 충분히 리해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교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색과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언제인가 대학교육경험도 립회에서 그는 두개의 그림을 청장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자제로 밥을 먹는 그림이었다. 주입식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모든 학생들을 창조형, 실천가형의 인재들로 키울것을 호소하는 두장의 그림이 준 여운은 컸다고 한다.

김송희교원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와 의견을 대단히 중시하고있다.

강의를 끝내면서 학생들이 《모두 파악하였습니까?》로부터 《얼마든지 진단할수 있습니까?》로 되게 하자는것이 그의 목표이다.

수많은 강의안과 참고서, 교과서들을 집필하여 인쇄업성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한 김송희교원은 자질을 결집적으로 높여 충실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기 위해 분분초조를 탐구의 열정으로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사시장철 즐겨 찾는 류경김치

김치생산의 공업화, 과학화가 실현된 류경김치공장에서 김치류와 식혜류, 장림입류를 비롯하여 70여가지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고급의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에서는 원료입고로 부터 배추절단, 절입, 세척, 양념넣기, 발효, 숙성 등 모든 생산공정에서 김치의 독특한 맛을 최대한 배수 있는 기술지표를 철저히 준수할뿐 아니라 제품의 출하단계에서도 품질검사를 엄격히 진행

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김치들은 평하고 시원하면서도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감칠맛이 있어 누구나 좋아한다. 특히 향기와 영양가를 잘 보장할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류경김치공장의 종업원들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맛좋은 김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본사기자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 (1)

조국에 갖 체류하던 어느 날 나는 평양의 이름난 국립연극단에서 창조공헌 혁명연극 《말에게서 온 편지》를 관람하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안내원에게 왜 혁명연극이라고 하는가 그 연유를 물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혁명적인 연극이라고 말씀이시고 그 시기에 창작하신 연극이라는것이였다.

이 연극이 1927년 겨울 무용에서 창조공헌되고 1930년대에 오가자를 비롯한 카를, 고유수 등 여러 지방에서 광범히 공연되었으며 1980년대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로 혁

명연극으로 재창조되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이다. 나는 아주 흥미있게 또 주의깊게 연극을 관람했다. 훌륭했고 배우는바가 컸다. 대중계몽문제, 인민대중의 의식화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해학적인 웃음속에서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는 작품은 누구나 지킬수 없는 자부적인 인격으로서의 존엄도 지킬수 없고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역할도 수행할수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를 잘 끝나가면 서도 거기에서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오고 정극적인 생활과 회귀적인 생활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웃음과 정서도 있고 사색도 있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이였다. 연극을 본 소감에 대한 이야기는 저녁식사시간에도 계속 이어졌다.

연안의 넓은 지역에서 아동단이 부어졌는데 여기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자식들을 비롯하여 원수들에게 부모를 잃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원수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며 적과 용감하게 싸울것을 각오한 어린이들(8살-15살)이 망라되었다고 한다.

애국으로 새겨가는 값높은 삶

이 땅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동녘하늘이 희뽀히 밝아올 무렵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서나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진다. 안성하로인은 고향땅에 순결한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애국의 진한 맘을 쏟았다. 로인파 그의 가정은 산기슭과 비경지에 많은 복숭아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어느해 레년에 없이 잘된 첫물복숭아 수백kg을 앞에 놓고 로인은 말했다.

《이 복숭아를 군소제지의 타아소, 유치원아들에게 보내주자.》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 안성하로인의 가정에서는 품을여 키우고 따들이 복숭아를 군안의 아이들에게 보내주었다. 수십년세월 후대들을 위한 헌신의 길,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오고있는 자성당의 《복숭아나무집》일가. 애 어린 모에 불꽃했던 한그루의 복숭아나무가 오늘도 자

강도의 곳곳마다에서 무성할 숲으로 설레고있다. 언젠가 무산군에 대한 취재길에서 있는 일이다. 우리가 탄 차가 물매 급한 차유령을 넘고있는데 차창밖으로 무슨 일인가에 열중하고있는 사람이 내다보였다. 외진 경림 한복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류다른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사연을 알아보니 그는 밤급 내린 폭우로 폐인 도로를 손질하고 있었다.

고 시대를 진감시키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만이 애국자로 되는것이 아니다. 차유령의 이튿모를 길손과 같이 누가 보지 않는 외진 곳에서도 스스로 좋은 일을 찾아하는 사람, 나라의 재산을 자기 집재산과 같이 여기며 한방울의 물, 한그의 석린이라도 아껴쓰는 사람, 어렵고 힘든 일터이지만 수십년세월 한 초소, 한직종에서 많은 일을 책임지고 하기 위해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을 어찌 애국자라 하지 않을수 있랴.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코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아름다운것이다.

공화국에서 재자화회를 힘있게 추진해나가고있는 속에는 많은 단위들에서 유류자재를 리용한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생산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봉사로 흥성이어 평양시 모란봉구역직매점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윤광옥 모란봉구역직매점 경리는 여기에 있는 생활필수품들은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 생필직장들과 가내작업반들에서 지난 시기 쓸모없이 버리던 유류자재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소비품의 가치수도 많은데다가 그 질 또한

해 버려지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일껏 계산해보아도 적지 않은 량이었다. 하여 이들은 집체적인 지혜를 모아 제품생산지표를 확대하여 자투리의 리용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 인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새 제품생산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조전민족을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기관들을 독차지하고 조선사람들에게 학교문을 열어주지 않던 암흑의 세월이 아니었다. 안내원은 한두마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달림의 회고록 《어머니의 두터움》(제2권)을 읽으면 잘 알수 있노라고 권해주었다.

조국의 무료교육제도와 시책에 대하여 감탄하고있던 나로서는 그것을 깊이있게 아는것이 교육자로서 응당 한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곳 직매점의 리용생산반에서도 여러가지 자투리와 부산물들을 회수, 선별하여 리용잡화와 수공예품, 어린이옷, 공예품, 부엌예간, 놀이감을 비롯한 소비품을 자체로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자들의 호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새 제품생산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하여 오늘은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는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하게 되었던것이다. 지금 모란봉구역직매점이 아니라 평양시안의 여러가내작업반들과 리용생산반들을 비롯한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큰 투자가 없이 유류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생활필수품을 생산해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이든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는것이 없었다. 산뜻한 남녀사즈와 어린이달린옷, 운동복을 비롯한 옷류들, 뽕시옷으로서도 편리성이 보장된 방삼과 옷걸이, 의자 등 가정용제품들, 가정주부들이 즐겨 애용하는 여러가지 색깔과 용도의 크고작은 수지그릇들... 하나같이 마음에 들었다.

이곳 직매점에 있는 소비품들은 그 종류가 세분화되어있고 또 개개의 소비품마다에 생산자들의 성가이 깃들여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있었다. 그래서인지 직매점은 사람들이 붐비고 흥성이었다.

그들가운데는 빨깁고 파란비닐그릇들을 받아안고 웃음꽃을 피우는 가정주부들도 있는가 하면 등그린 재량이 달린 모자를 써보며 만족해하는 로인도 있었다.



본사기자 류현철